표결까지 간 민주 광주시장 경선 재심

비밀투표·봉인… 최종판단은 최고위로

경선 만큼이나 아슬아슬한 표차 예상
"정치적 부담 피하자" 공개투표 거부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확정 여부는 오는 30일 밝혀질 전망이다.

민주당 재심위가 28일 무기명 비밀투표와 함께 투표용지를 밀봉, 30일 개최 예정인 최고위원회의에서 개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심위 투표 결과와 최고위원회의의 최종 의결 여부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무기명 비밀투표 배경**=재심위가 무기명 비밀투표와 투표용지 밀봉 이후 최고위원회의 개봉이라는 고육책을 쓴 것은 그만큼 광주시장 후보 경선 문제가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28일 재심위에서 공개투표를 통해 결과를 발표할 경우, 기각 및 인용 결정에 따른 강력한 반발이 불가피한데다 정치적 논란과 오해 등을 피해갈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고위원회의에서 투표 결과를 공개하고 최종 의결 절차를 밟을 경우, 상대적으로 정치적 부담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 작용한 것이다.

한편, 광주시장 후보 경선 재심 문제는 2시간 이상의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을 벗어나 1시간 정도의 논의 끝에 비밀투표가 실시됐다.

이는 각 후보 측에서 각종 루트를 통해 재심 기각 및 인용에 대한 주장을 꾸준히 전개함에 따라 재심위원들이 사안을 충분히 인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인용 혹은 기각 결정**=전체 9명의 재심위원 가운데 7명이 이날 회의에 참석함에 따라 광주시장 후보 경선 재심 기각 및 인용 여부는 4표 이상이 확보돼야 한다.

각 후보 측에서는 재심위 직후,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서로 기각 및 인용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날카로운 신경전을 펼쳤다.

이와 관련, 민주당 내부에서는 각 후보 진영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다 재심위원들의 성향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4대3 정도의 아슬아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또한, 무효표가 나올 경우, 기각과 인용 결정이 3대3으로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

민주당 관계자는 "광주시장 후보 경선도 극적인 결과를 가져온데 이어 재심 여부도 아슬아슬한 표 차이가 예상된다"며 "참으로 힘든 경선"이라고 푸념했다.

◇**최고위원회의 의결**=30일로 예정돼 있으나, 각종 현안과 경선 논의 사항들이 밀려있다는 점에서 29일 열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 문제는 재심위의 투표 결과에 대한 최고위원회의의 의결 여부다.

선관위와 재심위의 결과가 엇갈리고 최고위원회의가 정치적 판단에 나설 경우, 재심위의 투표 결과가 변경될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광주시장 후보 경선 재심 문제가 극도로 민감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최고위원회의에서 결과를 번복할 경우, 민주당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재심위 비밀 투표 개봉 결과 재심 수용의 결론이 나올 경우, 재경선 여부와 전략공천 등을 놓고 또 한 차례의 격론이 예고되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당무위원회의. 지방선거 후보 인준을 앞두고 당내 비주류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세균 대표 등 참석자들이 개회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뒤늦게나마 '절차의 민주주의' 중시…29대7로 통과

민주 당무위 박준영 전남지사 후보 확정 안팎

박준영 현 전남지사가 28일 당무위에서 민주당 전남지사 후보로 최종 확정된 것은 더 이상 호남에서 경선 관련 갈등이 지속될 경우 수도권 선거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이번 민주당 경선이지만 후보들이 서로에게 유리한 룰을 주장하며 경선을 지체시키는 관행을 더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뒤늦게 나마절차의 정당성·과정의 민주주의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전체 62명의 당무위원 중 46명이 참석, 어느 때보다 열띤 토론장이 된 28일 당무위 회의는 당초 예상대로 전남·북지사 경선 실시를 요구하는 비주류 측의 거센 목소리가 쏟아졌다.

비주류의 이종걸 의원은 "인천만 빼고 대부분 광역자치단체 후보 경선이 무산되거나 무산돼가는 형국"이라며 "이 같은 일이 민주당에 벌어진다는 것에 자괴감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비주류 측 쇄신모임 공동대표인 김영진 의원은 "호남에서 경선 바람을 일으켜 지방선거에서 승리하자고 해놓고 전남·북에서 이게 뭐냐"며 "감동을 주는 경선이 되도록 확실한 처방이 필요하며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일갈했다.

이에 대해 박준영 지사는 "전남·북 지사 후보 선정 문제가 누가 도의 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류·비주류 간 당권 싸움으로 비화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후보자마다 경선 방법을 놓고 이렇게 대립하면 어떻게 경선을 제대로 치를 수 있겠느냐"고 비주류 측을 비난했다. 그는 또 "일부 후보가 등록을 하지 않아 경선이 무산된 것이지 나 때문에 경선이 무산됐느냐"고 항변했다.

하지만, 이 같은 비주류 측의 집단적 목소리와 달리 정작 투표는 박 지사 측을 압도적으로 인준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36명의 당무위원이 투표에 참석, '29대 7'로 박 지사를 후보로 최종 인준한 것이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김완주 현 전북지사도 '27대 9' 표차로 후보로 인준을 받았다.

이 같은 압도적 표차는 상당 수의 비주류 측 인사들이 세의 불리함을 느낀 나머지 기권하고 자리를 떠난 탓도 있었지만 비주류 측 주장이 당무위원을 설득하지 못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물론 주류의 세가 비주류를 압도하고 있다는 것도 이번 표결을 통해 확인됐다.

/박지경기자 jkpark@

민주 "화순·해남군수 전략공천"

전완준 선거법 위반 구속

민주당이 선거법 위반과 뇌물 수수혐의로 후보가 구속된 화순군수와 해남군수 후보를 전략공천을 통해 다시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인 김효석 의원은 28일 "화순군수와 해남군수 경선을 다시 시행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무리가 있다"며 "전략공천을 통해 후보를 다시 선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전완준 화순군수 후보는 27일 자신의 관사에서 유권자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됐다. 전 군수는 지난달 7일 오후 7시께 민주당 읍·면·청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 등 23명을 관사에 초대해 식사와 고기, 주류 등 38만4천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됐었다. 검찰은 또 향응 제공 혐의 이외에도 전 군수의 지인들이 선거구민들에게 700여만 원을 기부한 혐의와 224만원 상당의 쇠고기를 전달한 혐의 등을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충식 해남군수 후보는 경관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뒤 민주당 후보 사퇴에 이어 이날 군수직까지 사퇴했다. 그러나 전 군수는 아직 후보 사퇴 등의 후속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권일·최경호기자 cki@kwangju.co.kr

■ 군수 3명 줄줄이 구속 착잡한 화순

"하필 고을 잔칫날에…얼굴 못 들겠다"
도민체전중 날벼락…민주당 비난도

28일 찾은 화순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추적추적 비가 내리고 있는데다, 전완준 화순군수를 포함, 세 명의 군수가 선거법위반 등으로 구속된 탓인지 거리에서 만난 군민들의 표정에는 착잡한 표정이 어려있었다. 화순에서는 처음으로 제 49회 전남도민체전이 열리는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에서도 떠들석한 분위기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화순군청은 상당수 직원들이 도민체전 행사에 지원된 때문인지 복도가 썰렁했다. 군청 앞이나 민원실, 복도에서도 민원인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다.

공무원노조 사무실에서 만난 한 노조원은 "온통 뒤숭숭하다"면서 "도민체전 개막으로 모처럼 북적대나 싶더니, 군수님이 구속되고 비까지 오는 등 악재가 겹쳐 착잡한 심경"이라고 말했다. 군청 앞에서 만난 주민에게 군수 이야기를 꺼내자 "할 말이 없다"며 자리를 비켰다.

화순읍내 시장 골목도 분위기는 비슷했다. 좌판을 벌린 노점상 사이에서도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어려웠다. 5일만에 장이 섰지만 노점상 주인들이 나오질 않아 여기 저기 널린 좌판 중 이빠진 듯한 빈 자리들이 눈에 많이 띄었다. 튀김집에서 만난 한 아주머니는 "선거 얘기는 꺼내지도 마라"며 손사래를 쳤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애써 외면하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하필이면 도내 각지에서 온 손님들을 맞는 '잔칫날'에 군수가 구속되는 사태를 맞게 되면서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임호경 전 군수가 구속된 것을 시작으로 지난 2006년에는 당선된 지 3개월도 안돼 전형준 전 군수가 구속된데 이어 이번에는 동생인 전완준 군수마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자, 주민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떨궜다.

시장에서 어묵을 팔던 장모(63)씨는 "자존심이 상하고 화도 나 무슨 말을 하지 못하겠다"며 얼굴을 찌푸렸다. 아예 이번 선거에서는 투표를 하지 않겠다는 주민도 적지 않았다.

하니움 체육관도 2730석에 이르는 관중석이 텅 비다시피했고 경기장 주변 행사장을 찾는 주민이나 관람객도 드물었다. 이모(64·화순군 화순읍)씨는 "왜 하필 고을 잔칫날에 맞춰 군수가 구속되는지 모르겠다"며 착잡한 표정을 지었다.

검찰에 대한 원망도 섞여있는 듯 했다. 화순읍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정모 씨는 "솔직히 이번 도민체전 특수를 은근히 기대했는데, 군수까지 구속된데다 비까지 내려 모두 글렀다"며 발을 굴렀다.

하지만, 상당수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대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이상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에는 정말 좋은 인물을 뽑아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인 만큼 말을 아끼면서도 이런 불명예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었다.

이모(45·화순군 화순읍)씨는 "지금까지는 작대기만 꽂아놔도 민주당이라면 찍어줬지만, 이번에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